지도자의 도덕성

손봉호 (대표주간)

최근 박근혜 씨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보려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다. 대통령 후보 공탁금이 3억 원이고 후보자들 거의 대부분이 전체 투표의 15% 이상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로 국고수입이 꽤 짭짤할 것 같다.

이제까지 열한 분의 대통령이 취임했으나 어느 한 분도 명예롭게 퇴진하지 못했다. 심지어 망명한 분, 감옥간 사람, 자살한 분까지 있었다. 박근혜 씨도 재판을 받을 것 같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뭐 길래 그 자리에 앉으려고 꽤 괜찮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온갖 재주를 다 부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의 헌법을 유지하는 한, 다음 대통령도 거의 확실하게 명예롭지 못하게 물러날 것 같다.

지도자의 중요성은 피지도자의 성숙성에 반비례한다. 스위스나 스웨덴 같은 나라는 수상이 누군지 모르는 국민이 많고 네덜란드에서는 수상보다 유명 축구선수가 더 많이 알려졌다. 이번 탄핵 심리기간에 대통령 자리가 비었는데도 모든 것이 별 차질 없이 잘 굴러간 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비교적 많이 성숙해진 것 같다.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 중국, 북한 같은 후진국에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

최근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서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좋은 비전을 제안하고, 상황 판단을 잘 하며, 소통을 잘 하고, 권위와 겸손을 잘 조화하는 등의 많은 조건들이 제시되고 있다. 물론 다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도덕성이다. 지도자의 도덕성에는 책임성과 더불어 예의를 포함한 교양과 품위, 준법성도 포함된다. 예의와 도덕은 인간관계를 조절하는데 요구되는 제도들로서 모두 "자발적으로," 그

러나 "마땅히" 지켜야 하는 당위(當爲)들이다. 도덕성은 주어진 지식, 판단력, 경험 등의 능력과는 전혀 다른 자질이다.

물론 지도자는 유능해야 한다. 무능 그 자체는 비도덕적이라 할 수 없지만 무능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은 비도덕적일 수 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비도덕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최순실에 대한 그의 오판은 정의를 파괴하고 사회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인은 무능하다 하여 비판 받을 이유도,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다. 더 군다나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나 무능하면 지도자는 되지 말아야 한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유능한 지도자가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건한 설교자 스펄전(C. H. Spurgeon) 목사는 그가 책임자로 있던 신학교 지원생들 가운데 다른 일에 모두 실패한 것을 보니 하나님이 자신을 목회로 이끄는 것 같다고 하는 사람은 결코 합격시키지 않았다 한다.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 목회에도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라 했다.

물론 유능하다 해서 자동적으로 도덕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능력과 도덕성은 상관관계가 없다. 다만 유능한 사람은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큰데, 지도자가 되어서 비도덕적으로 지도하면 무능한 지도자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도덕성이 약한 사람은 차라리 무능한 것이 바람직하다.

지도자는 피지도자보다 비도덕적으로 행동할 유혹을 더 많이 받는다. 지도자는 지도력을 행사하기 위

> 지도자의 도덕성에는
> 책임성과 더불어 예의를 포함한
> 교양과 품위, 준법성도 포함된다.
> 예의와 도덕은
> 인간관계를 조절하는 데에 요구되는
> 자발적이고도 마땅한 당위의 제도이다.

해서 피지도자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혜택도 많이 받는다. 그런데 그런 권한과 혜택은 오직 지도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만 이용되어야 하는데 다른 목적으로 위해서 사용할 유혹을 받는 것이다. 공무를 위하여 제공되는 고급 승용차를 사적인 용무에 쓰고 싶은 것이다. 액튼 경(Lord Acton)이 지적한 것처럼 "모든 힘은 부패할 경향을 가지고 있고 절대적인 힘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권한도 혜택도 없었다면 매우 정직할 사람이 그런 것을 갖았기 때문에 부정직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도자는 피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큰 절제와 금욕이 요구된다. 그런데 문제는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야심이 많고 권력욕과 명예욕이 강하기 마련이고, 그 욕망은 공익을 위한 봉사보다는 그 권력의 향유와 사적인 이익에 향하기가 매우 쉽다. "염불보다 잿밥"에 마음을 두는 것은 잿밥이 있기 때문이고 잿밥이 크고 맛이 있으면 염불은 그만큼 더 무시되고 만다.

권한이 막강할수록 반드시 부패한다.
그래서 권력분산, 감시, 제한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도자가 실패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지도자의 권한과 혜택을 이용해서 덕을 보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최순실 같은 사람이 재벌을 협박할 수 있었다. 그런 사람일수록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권력에게 아첨할 뿐 결코 권력자의 비리나 약점을 지적하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을 둘러 싼 청와대 참모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경고하지 않았다. 나라나 대통령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보신과 이익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도자는 지도자란 사실 자체로도 충분히 보상을 받지만 그 지도자를 돕는 사람들은 그런 보람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돈, 연줄 같은 하급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자신만 도덕적이 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도자의 권한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챙기는 자들을 주위에서 제거할 수 있어야 자격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는 부정한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순실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자신 때문에 국민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지도자가 비도덕적이면 그를 돕는 자들도 담대해져서 부정을 저지를 것이고 심지어는 지도자의 약점폭로를 협박함으로 큰 이익을 챙길 수 있다. 결국 공동체에는 정의가 사라지고 약육강식의 정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을 우리는 지금도 짐바브웨, 소말리아, 북한 같은 나라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물론 그런 것은 정도의 차이를 두고 기업, 기관, 종교단체 등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날 수 있다.

지도자의 도덕성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 지도자에게 필수적인 권한을 남용할 유혹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동체는 모든 것을 지도자 개인의 판단에만 맡기지 않는다. 국가 지도자는 그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양심적인 지도자라도 독재하게 되면 반드시 부패한다. 그래서 권력 분산, 감시, 제한, 처벌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 가장 효과적인 제도가 바로 민주주의다. 그러나 민주주의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유권자들의 판단능력이 부족하면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지 못해서 큰 손해를 입는다. 이번 탄핵을 거울삼아 다음 선거에는 반드시 도덕적이면서 유능한 대통령을 뽑아야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

글 | 손봉호

본지 대표주간,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